광주은행 양궁 최미선, 청두 U대회 '금 명중'

카자흐 선수 꺾고 개인전 우승
여자 단체전에선 은메달 추가

최미선(광주은행 텐텐양궁단)이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축제인 '제31회 청두하계 유니버시아드' 여자 양궁 개인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미선은 지난 31일 중국 쓰촨성 청두 근대5종센터 승마경기장 랭킹대회장에서 열린 대회 개인전 결승에서 다이애나 투르순베크(카자흐스탄)를 세트 스코어 6-2로 꺾고 1위에 올랐다.

예선 라운드를 5위로 통과한 최미선은 4강에서 예선 1위로 올라온 이가현(대전시체육회)을 상대로 6-4 승리를 거두며 결승에 안착했다.

한국 여자양궁은 전날 열린 단체전에서는 은메달을 수확했다.

최미선·이가현·김소희(청주시청)이 호흡을 맞춘 한국은 8강에서 카자흐스탄을 6-2, 4강에서 프랑스를 6-0으로 꺾고 결승에 올라 중국과 슛 오프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다.

세트스코어 4-4(46-54, 55-53, 55-52, 53-54)에서 8-10-9을 쏜 한국은 9-10-9를 쏜 중국에 패했다.

2016 리우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인 최미선은 지난해 태극마크를 달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지난해 창단한 광주은행 텐텐양궁단 맏언니로 2022 양궁월드컵 개인·단체 1위를 차지했다. 6년만에 출전한 양궁월드컵 파이널에서 안산에 이어 2위에 올랐다.

2023 양궁 태극마크 달고 아시안게임 티켓을 거머쥔 최미선은 오는 9월에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에 도전한다.

최미선은 "폭우와 체감온도가 40도를 넘는 악조건을 딛고 좋은 결과를 거둬 기쁘다"며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중국에서 열린 대회라 컨디션 조절 등 좋은 경험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은 광주은행 가족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항상 팀을 더욱 빛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최미선이 지난 31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양궁 결승전에서 과녁을 향해 활을 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도청 최세빈, 사브르 단체전 동메달

세계펜싱선수권 우크라 꺾어
최세빈 5연속 국제대회 입상

전남도청 펜싱팀 최세빈(사브르)이 2023 세계펜싱선수권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최세빈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2023 세계펜싱선수권대회' 사브르 단체전 한국대표팀으로 출전해 동메달을 획득했다.

한국대표팀은 준결승전에서 '강팀' 헝가리(3위)에게 39-45로 패한 뒤 3·4위전에서 우크라이나(6위)를 45-32로 꺾고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세빈·전은혜·전하영· 윤지수(이상 서울시청)으로 구성된 여자 사브르 대표팀(세계랭킹 2위)은 32강전 부전승으로 통과하고 16강전에서 튀르키예를 45-21로 꺾고 8강에 올랐다.

8강전에서 강팀 아제르바이젠(8위)를 만나 45-43로 승리, 힘겹게 준결승에 올랐다.

최세빈은 지난 알제리 월드컵 동메달, 타슈켄트 월드컵 동메달, 아테네 월드컵 은메달, 벨기에 신트니클라스 월드컵 금메달에 이어 세계선수권에서도 동메달을 따내 5연속 국제대회에서 입상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펜싱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한국 여자 사브르 대표팀. 왼쪽부터 윤지수·전하영·전은혜·최세빈. /연합뉴스

코트로 번진 우크라 전쟁 여파

스비톨리나 vs 아자란카 재격돌… '악수 안합니다' 미리 공지

우크라이나의 스비톨리나

벨라루스의 아자란카

윔블던서 악수 안해 팬들 야유
3주만에 미국대회서 다시 만나
스비톨리나가 2-0으로 승리

지난달 윔블던 테니스 대회 여자 단식 준준결승에서 '악수 논란'을 일으켰던 엘리나 스비톨리나(27위·우크라이나)와 빅토리야 아자란카(19위·벨라루스)가 약 3주 만에 다시 만났다.

스비톨리나는 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무바달라 시티 DC 오픈(총상금 78만637달러) 대회 첫날 단식 본선 1회전에서 아자란카를 2-0(7-6〈7-2〉 6-4)으로 물리쳤다.

두 선수는 지난달 윔블던 8강에서 만나 그때도 스비톨리나가 2-1(2-6 6-4 7-6〈11-9〉)로 승리했다.

다만 당시 경기가 끝난 뒤 스비톨리나와 아자란카가 경기 후 악수를 하지 않아 팬들로부터 야유받았다.

스비톨리나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나 러시아를 도운 벨라루스 국적 선수들과는 경기를 전후해 악수하지 않고 있다.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일부 팬들이 어떨 때는 스비톨리나를 향해 야유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상대 선수에게 야유하는 장면이 되풀이됐다.

그러자 이번 DC오픈에서는 팬들에게 미리 '이 선수들은 경기 끝나고 악수하지 않는다'고 공지하는 방법을 강구했다.

경기장 전광판에는 '이 선수들은 경기 끝나고 악수하지 않는다. 경기 도중과 경기가 끝난 뒤에 두 선수를 존중해달라'는 안내 문구가 표출됐다.

이 공지는 경기 후 야유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AP통신은 "경기가 끝난 뒤 두 선수가 곧바로 자기 벤치로 향하자 관중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며 "일부 팬들은 우크라이나 깃발을 흔들기도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WTA 투어는 앞으로 우크라이나 선수와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 선수의 경기마다 이런 공지를 할 것인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스비톨리나는 2회전인 16강에서도 러시아 선수인 다리야 카사트키나(11위)를 만난다.

스비톨리나와 카사트키나는 올해 프랑스오픈 16강에서 만나 스비톨리나가 2-0(6-4 7-6〈7-5〉)으로 승리하는 등 상대 전적 7전 전승을 기록 중이다. /연합뉴스

'9구단 체제' 프로당구 팀리그 3일 개막

2개 신생팀 합류 7개월 대장정

프로당구 PBA 팀 리그가 다양한 변화와 함께 막을 올린다.

PBA는 3일부터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PBA 스타디움에서 웰컴저축은행 PBA 팀 리그 2023-2024 1라운드를 시작으로 5개 라운드와 포스트시즌까지 7개월의 대장정에 나선다.

이번 시즌 가장 큰 변화는 신생팀 합류다.

하이원리조트 위너스와 에스와이 바자르가 새롭게 합류하면서 총 9개 팀 체제가 됐고, 종전 라운드당 7일(28경기)에서 9일(36경기)로 더 많은 경기를 즐길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시즌부터 경기 규정도 바뀐다.

승차제 방식으로 진행한 리그 순위 규정이 승점제로 변경한다.

승리 팀은 3점, 패배 팀은 0점이며, 풀세트(7세트) 경기 시에는 승리 팀은 2점을 얻고, 패배 팀도 1점을 가져간다.

포스트시즌 진출 방식도 종전 전·후기리그 우승-준우승에 오른 4개 팀이 펼치던 방식에서 5개 라운드별 우승팀이 포스트시즌에 진출해 챔피언을 가린다.

라운드별 우승팀이 겹칠 경우에는 정규리그 종합 순위 차순위 팀이 포스트시즌에 오른다.

포스트시즌 대진은 정규리그 종합 순위 기준으로 하고, 지난 시즌까지 진행됐던 상위 팀 선승 어드밴티지는 폐지됐다.

개막일인 3일 낮 12시 30분에는 지난 시즌 포스트시즌 챔피언결정전에서 만났던 블루원리조트와 웰컴저축은행이 개막전을 치르고, 하나카드-에스와이(오후 3시 30분), 휴온스-SK렌터카(오후 6시 30분), 하이원리조트-크라운해태(오후 11시)가 경기를 치른다.

PBA는 팀 리그 개막을 하루 앞둔 2일 고양 킨텍스 PBA 스타디움에서 PBA 팀 리그 미디어데이를 연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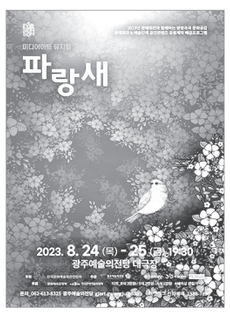
즐거운 문화산책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비공식작전
2관	비공식작전
3관	밀수
4관	엘리멘탈, 인시디어스: 빨간 문
5관	더 문
6관	더 문
9관	밀수, 명탐정코난: 흑철의 어영, 몬스터 패밀리 2
7관 씨네카플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 명탐정코난: 흑철의 어영, 여름날 우리
8관 씨네카플	비공식작전,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 인시디어스: 빨간 문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기획공연 포시즌 미디어아트 뮤지컬
파랑새
일시 : 2023-08-24(목)~25(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5

GAC 재개관 시리즈 - 포시즌Ⅲ「정트리오 콘서트」
일시 : 2023-08-26(토) 17: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5